행복북구 시민포럼

지역을 생각하는

문화평상

역사문화/시민문화
문화재생/문화콘텐츠

지역 & 문화정책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2020. 11. 23.(월) 14:00 ~ 17:00
어울아트센터 함지홀, 갤러리 금호

주최 / 주관 대구광역시북구 BUK-GU DISTRICT, DAEGU CITY 행복북구문화재단 HAENGBOK BUKGU CULTURAL FOUNDATION

지역을 생각하는

문화평상

프로그램

1부 : 지역 & 문화정책				page
14:00 ~ 14:20	기조연설	**차 재 근** (포항문화재단 대표)	문화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이해	07
14:20 ~ 14:40	발 제	**전 고 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일상이 문화로 꽃피는 문화도시의 꿈	27
14:40 ~ 15:30	토 론	**김 지 원** (광주문화재단정책기획실장) : 좌장		
		김 정 학 (대구 교육박물관 관장)		
		오 동 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원 상 용 (문화도시 4.0 소장)		
2부 :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page**
16:00 ~ 16:40	추진위원회 분야별 발표	**김 병 연** (문화재생) : 금호강 수변문화 활성화 방안		35
		유 슬 아 (문화콘텐츠) : 주민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공유공간		43
		이 승 로 (시민문화) : 하중도 및 이태원길 활성화 방안		47
		이 정 웅 (역사문화) : 도남동 국화마을 이야기		57
16:40 ~ 17:00	소속단체 발 표	**이 재 인** (국우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 대구 북구 전통 '활'		67
		이 승 로 (새마을문고 대구북구지회 회장) : 부키야 놀자		75
17:00 ~ 17:10	사례발표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김 혜 연** 행복북구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		105

지역을 생각하는

문화평상

부대행사

부대행사	
전시 **〈문화평상에서 문화를 만들다〉**	일시 : 11.23(월) ~ 25(수) 장소 : 갤러리 금호 내용 : 지역민과 함께 만든 교육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리:본 아트팩토리 - 사진으로 바라보는 우리동네
공연 **〈로비 음악회〉**	일시 : 11.23.(월) 15:30 ~ 16:00

[1부] 지역 & 문화정책

문화정책으로서의 문화도시 이해

| 기조연설 | 차 재 근 (포항문화재단 대표)

문명, 도시, 재생, 문화도시

차재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문명의 생성

- 장소(지역)와 인류(사람)
- 도구와 기술
- 의식(표현)과 언어(소통)
- 다양성과 혼종(생물학적/문화적)
- 창조(생산)와 교류(교역)
- 소유와 쟁탈

문명의 팽창

- 공간화와 지역화
- 문명의 다른 이름 도시, 국가의 등장
- 장벽(경계)와 주의(이데올로기)
- 도시화 과정, 거대 도시화
- 계층의 생성과 소유와 지배 구조 고착
- 정책과 제도, 시민과 정부의 등장
- 산업사회로의 전환, 국지적 갈등 지속

문명의 파괴와 혁신

- 파괴적 혁신(뤼크페리)
- 혁신중독사회(뤼크 페리)

  혁신을 위한 혁신
- 창조적 파괴(슘 페터)
- 창조적 혁신
- 과정적 혁신

파괴적 혁신의 세가지 결과

혁신의 양면성과 모호성

끊임없이 부정하는 영/ism에 대한 문제제기

자본/혁신 없는 성장 없고/소비 없는 성장 없다

파괴적 혁신과 문화(예술)

화학적 순수 상태에서의 혁신, 현대예술

좌파 예술가, 우파 구매자

보헤미안의 브르주아화

카메라/스마트폰/뉴트로

도시의 쇠퇴

- 장소적 팽창의 한계
- 인구유입, 생산의 둔화
- 공간의 노후화와 도시환경 열악
- 산업과 경제의 쇠퇴 위기
- 삶의 방식과 가치추구의 변화
- 도시 매력도와 지역신뢰도 하락

루이스 멈포드의 발견

- 거대도시와 자본의 독점과 착취
- 메트로폴리탄과 게릴라의 등장
- 르네상스인, 스페샬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 골목, 소도시의 가능성, 소박도시

도 시 재 생

❖쇠퇴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 도시경제의 주기 변화
- 토지, 생산, 인구, 소득 등 성장 한계
- 종합적 처방, 물리적 방법 주도
- 원도심에 집중

❖문화적 도시재생(사회적,유기적 재생)
- 물리적 시설확충과 구별
- 장소적 재생+사회적 재생
- 시민의 내재성 발현, 창조도시 표방

재생의 오류

- 외국 모델, 사례의 맹목적 적용
- 문화 없는 지역재생, 문화적 과정 부재
- 도시개발의 가면, 정작 개발이익은 사유화
- 일상성 결여된 무늬만 재생,
  문화공동체로의 발전 한계성 노출
- 보편주의, 획일주의, 상업주의에 함몰
- 권력화와 정치화, 자본에 점령
- 공공성 결여된 재생-공공성 결핍 지속

도시재생에 사용된 문화에 대한 반성

- 거대도시와 자본의 독점과 착취
- 도시정비방식, 환경과 문화를 조금 배려
- 옛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의 접근 한계
- 표준화된 도시계획 중 하나일 뿐(도시재생)

문화적 재생, 문화도시에서의 문화는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

(문화다양성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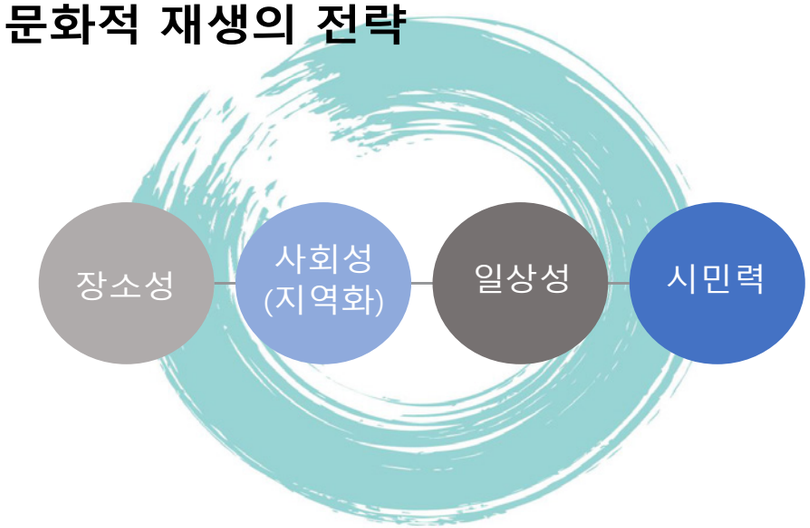
문화적 재생 방안 모색

- 장소화된 문화언어가 개발언어를 대체
- 지역문화주체로서 창조문화계급 양성,
  유입과 양성의 균형
- 문화공론의 내부화로 공공성 확보
- 문화공동체에 의한 문화재생산 구조 지향
- 컬쳐노믹스의 반성을 전제로 한 시스템화
-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마련

문화적 재생의 요소

- 문화적 유산
  - 도시,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 사회변동에 대응
  - 사회적 위기와 삶의 전환
  - 탈근대적 '도시, 삶'의 가치추구
- 주체의 형성
  - 창의적, 자율적인 시민의 등장과 확장

문화적 재생의 전략



문화적 재생의 새로운 언어

- 어떤 재생보다 누구를 위한 재생인가
- 지역활성화, 근린재생, 사회적 재생의 다중전략
- 정책일관성, 느린 속도
- 재생주체의 자율성과 재량권
- 시민력을 위한 협치, 공유
- 아이디어가 아닌 규칙과 과정 바꾸기

도시(심)재생의 위험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력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 (도심 부근 주거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중상층/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지역 특성이 손실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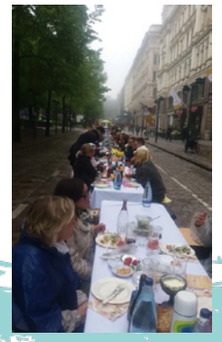
젠트리피케이션 VS.
목포, 서울, 부산, 파리, 베를린, 포항

- 목포/사명감을 가진 개인이 지켜 내겠다?
- 서울/민관 거버넌스로 풀어 보자?
- 부산/고도로 집단화된 클러스터로 해보자?
- 파리/SEMAEST 민관협력공사로 대응?
- 베를린/이익단체 조직을 통해 대응?
- 포항/순환형 문화공영개발 방식은 어때?

문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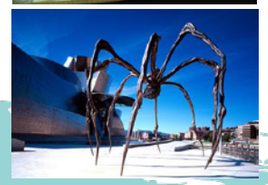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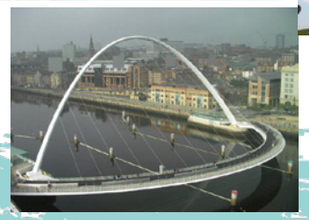
- 문화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문화진흥법)
- 삶의 전환을 위한 문화,
  삶의 전환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청년 야코의 하늘아래 저녁식사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 동아리
칼리오문화네트워크/조앤나

문명, 도시, 재생, 문화도시

문화도시 원칙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분권 •지역문화다양성

문화도시 주요 키워드

- 가치체계와 방향성
- 추진의지와 지자체 간 협력, 재원
- 추진과정(담론화)과 거버넌스 확보
- 특성화 계획과 지역 문화다양성
- 도시재생 뉴딜과의 구체적 협업
- 유기적, 입체적 실현 가능성
- 민간주도 추진체계 구축
- 장소적 한계 극복 방안

문화도시 준비 과제

- 시민주도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업추진 방법의 전환 없이 지정 가능?
- 조성계획의 내용과 재원 확보
- 장기 문화비전의 한 축으로서의 문화도시
- 문화도시 이후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확보
- 추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양성, 유입)
- 도시 전역으로 확장, 어떻게 할까
- 어떤 추진체계를 만들 것인가

문화도시 행정체계, 어떻게?

- 문화도시 기본개념 이해 전제 되어야
- 부서간 협업 체계(김해/공주)
- 협업 사례, 예비/본 지정 도시 학습
- 스페인 빌바오市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 1,2,3기 주요도시 사례로 본 교훈
  (김해/서귀포/남원/영도/춘천/충주 등)
- 도시내 구체적인 협업 사례 만들기
- 지속성을 위한 파트너 사업 설계 위한 협업

문화도시에 대한 새로운 도전

- 도시 별 차별성
- 기재부, 문광부의 성과관리 요구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개편
- 추진체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 대두
- 평가기준과 성과관리지표에 관한 시각차이
- 산업/관광/건축/디자인 등 다양한 견해 개입
- 문화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 높아짐
- 정책 중복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 제기
- 문화정책 제영역에서의 견제 or 지지

지역문화원칙

-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다원주의 원칙
- 문화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 원칙
- 시민사회참여, 연대와 협력 보장의 원칙
- 상호 보완성과 균형의 원칙
-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 희소 보전, 긴급 우선의 원칙

지역주의

| 지방주의(고전적 지역주의)

| 변증법적 지역주의

| 비판적 지역주의

지속성을 위한 조건

- Ideologie, 끊임없는 ism의 등장
- 법률과 제도, 시스템化
- 문명과 도시, 자본과 권력
- 변화하는 능력, 유연성, 자기 쇄신
  (찰스 핸디 <정신의 빈곤>
- 혁신(inno~ and reno~)
- 시민력, 거버넌스

문화영역으로 옮겨 보면

- 문화정치학의 개입(도구 or 장식)
- 헌법에서의 홀대(전문과 조문), 법률 산만
- 거대도시의 등장, 지역문화의 위기
- 법정문화도시(정부수립 이후, 가장 과정과 가치 중심적인 혁신적 정책)의 혁신 패러다임 제시
- 혁신에 대한 내,외적 저항
- 시민력? 공유원탁테이블, 장기 비전

결국 지속성은 사람(시민)이다

시민들의 구체적 삶의 현상 하나하나에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과정과 규칙이 존중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창의적 상상력이 시민의 삶을 전환시켜 도시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 제 영역을 갱신, 진화시킨다.

문화도시가 이를 증명해 낸다면,
이는 세계 문명사에 있어 혁명이다

법정문화도시 지속성을 위한 조건들

- 일상화된 시민력(수, 계기성 아님), 거버넌스
- 터무니에 기반한 공간과 장소의 문화자산화
-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정과 규칙 바꾸기
- 견고함과 유연성이 조화로운 시스템
- 제도와 재원, 정책일관성과 시민의 공유지지
- 지속성에 기반한 특성화 브랜드전략
- 문화자산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 컬처노믹스(정량/부가가치)요구에 대한 선제적 성과관리로 학술연구적 대응자료 축적

인류 역사에 있어, 지속성의 실체는

자본과 권력, 파괴와 개발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혁신, 진화시키는 지속성의 실체는
결국 문명과 기술, 그리고 사람 곧 시민이다.
문화의 영역인 셈이다.
문화가 가진 내재적 가치가 문명을 만들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만들며, 이는 가장 부가가치가 뛰어난 자본재이다.
정성, 정량적 학술연구 성과자료를 축적해
행정부 내 공격적인 정책 주도가 필요할 때다.

지속성을 위해 절실한 세가지

- "모든 국민은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의 헌법에 조문화 필요
- 이를 위한 모두의 힘 모으기
-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 제시
- 조성계획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 견지

만약의 경우라면.....?

[1부] 지역 & 문화정책

일상이 문화로 꽃피는 문화도시의 꿈

| 발 제 | **전 고 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일상이 문화로 꽃피는 문화도시의 꿈

1. 일상문화를 담는 그릇에 관한 복기

 # 1

문화의 세기를 이야기한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대규모 문화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건립에 열중했던 시대를 지나옴

 # 2

문화의 세기를 화두로 전개된 문화정책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생활속 문화활동이 가능한 문화의집의 개설이었음.

 # 3

1996년 서대문과 강릉의 문화의집 개소는 각 지역마다 뒤를 따르며 전국 160여개소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국지적으로는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넘어 참여까지 확장되었음.

 # 4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의집은 행정이 직영하거나, 지역 문화원의 부속 시설로 한계를 가진 곳이 많았음.

 # 5

시간이 흘러 전국의 문화의집은 100여개로 축소되고, 2016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의집의 대체재처럼 개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26개소에 금년 16개소가 증가할 예정임

 # 6

문화의집의 경우는 2004년 한국문화의집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하여 중심축을 잡고자 했지만 그 법적 기반이 모호하여 문화부 또한 크게 책임지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해 옴

 # 7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업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기반이 허약하고 제대로 된 구심이 없으면 휘청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짐

 # 8

문화부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외에도 폐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과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모두 생활권의 문화시설로서 위상을 지님

 # 9

하지만 진정한 생활문화를 담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정비를 통한 위상의 강화 및 재원의 마련, 운영 인력의 전문성 등을 담보해야 함.

 # 10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지점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형성했느냐에 대한 자기 질문과 성찰이 필요함

2. 생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 1

주민의 생활권역 내에 위치한 시설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진행되기도 했지만 크게 주목 받지 못한 한계

 # 2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문화를 장르 예술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접하려는 관습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언론이나 행정이나 정치인이나 대동소이한 태도를 견지함

 # 3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문화와 관련한 커뮤니티나 동호인들은 자비를 털어서 활동하고 주목 받지도 못하며 아마추어로 취급되며, 공공재로서 문화를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도 환대 받지 못하는 상황(단 지난 정부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를 협회를 만들고 생활체육처럼 확장해 보고자 하기도 함)

 # 4

예술인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화부를 비롯하여 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 복지재단 등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재단까지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활동하고 있음.

 # 5

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각종 사업은 비교적 장르예술의 형식을 넘어서서 삶과 예술이 조응하는 문화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에서 이를 수행할 만한 활동가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음

 # 6

결국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활동의 공간이 있더라도 관련 활동을 전개할 인력들의 부재, 제도적 장치의 미흡, 인식의 개선, 안정적 재원의 확보라는 과업이 뒤 따름.

 # 7

성남시를 비롯하여 부천시 등에서 이뤄진 문화활동 관련 커뮤니티의 양성 및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문화력을 증진하는데 지자체를 비롯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 8

특히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광장으로의 등장 및 관람객에서 문화생산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방식의 제대로 된 이행이 요구됨

3. 우리 도시는 어떤 정체성을 지니는지?

 # 1

개발 국가에 들어서면서 농경사회의 해체가 가져온 극심한 변화는 공동체 사회의 붕괴라는 수순을 밟았고, 지역은 원래의 모습을 바꾸었으며, 지역에 기억할만한 장소까지도 잃고 말았음

 # 2

여기에 새로운 체계의 도로명 주소는 지명을 통해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뿌리까지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렀음.

 # 3

지역 역사의 뿌리를 찾고 보전하며 전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던 지방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어르신문화학교 등을 통해 존재하지만 지역민들의 일상속에서 회자되고 방문하고 활용하는 조직으로 활착하지 못한데 이어, 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인해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4

공간이 갖는 물성이나 특징을 토대로 명명된 이름에서 시작하며 형성된 지역 정체성은 공단과 아파트 단지의 등장, 새로운 이주민들의 등장 등으로 인해 흔적 조차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역은 터무니를 가지고 있음

 # 5

문화도시의 시작은 이런 터무니를 찾는 것에서 발현하여 미래의 비전까지 아우르는 전개 방식을 찾는 태도가 필요함

 # 6

이를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지역 역사의 거시사에서부터 미시사를 통찰하는 이들과 사유하고 공론화 하며 표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

 # 7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와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슈화 하면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의 장으로 서서히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

 # 8

지역의 정체성은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환경과 조응하며 살아왔던 삶이 시간을 거치면서 새겨왔던 흔적에서 기인하고 이를 기질화하면서 구축되었음으로 이를 이슈화 하고 함께 되새김질 하면서 그 든든한 바탕에서 가치와 비전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누가 일할 것인지

 # 1

시민의 주체화에 대한 큰 고민없이 수행해왔던 다양한 정책들은 행정과 연구원과 전문가 들의 고육책이었음에도 현장의 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2

문화사회와 문화복지를 지향하며 설립된 광역문화재단이나 기초문화재단은 그 본질적인 사업의 영역 안에서 과부하 상태이거나 방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에도 지역문화의 컨트롤타워로 문화도시 공모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강행하는 사례가 많음

 # 3

관성화된 업무 영역에서 문화부분의 전문 일꾼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주체가 되어 끌어나가는 문화도시의 지향성을 실재 이행하고 구축하는 것은 매우 지난 한 일이라 여김

 # 4

더디더라도 우선은 시민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놀자리, 존중 받는 자리, 전문가와도 동등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테이블 등의 정례적인 구축을 통한 맷집 키우기가 선행되어야 함

 # 5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선한 일꾼, 미친듯이 파고드는 일꾼, 라포를 형성하는 선수, 교통정리를 잘하는 중개인 등을 문화도시 협의회나 지역예술위원회 등 추진 조직의 주체로 기용하는 방식이 필요

 # 6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활동했던 문화예술단체와 조직, 예술가, 도시재생분야, 사회혁신 분야 등에 대한 꼼꼼히 챙겨야 하며,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세대간, 계층간, 지역내의 지역간 주민들의 참여를 견인해야하고, 마련된 자리에서의 진행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

 # 7

이 과정자체가 이미 지역의 문화자산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위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사업을 발굴하는 가회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5. 문화도시의 계획

 # 1

계획은 답안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력이 답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 갈 필요가 있음.

 # 2

소소한 시민의 모임에서부터 공론의 장까지를 모두 기록하고 공유하고 다시 갈무리하며 제기 되었던 문제와 대안을 체계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획서의 작성이 이뤄짐

3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개도 등을 통해 암시적으로 보여줄 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치와 주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임에 대한 인식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

 # 4

행정은 모든 시민들을 위한 배경이지 주도하고 견인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가능한 일

 # 5

특히 행정부서에서도 전담 부서인 문화분야만의 독주가 아닌, 건축, 도시계획, 도로, 복지, 도시재생, 환경, 관광, 위생 등 고관여 부서의 총괄적인 지원 조직화 및 실효적 지원책 필요

 # 6

결국 문화도시 계획은 시민의 경험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집필되어야 하며, 완성이 아닌 진행중이며, 문화도시의 지원사업 기간만의 공모 사업이 아닌 도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한 맥락을 담지해야 함

 # 7

시민의 일상이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존중되고 있으며, 소외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언제나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시도하면 시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를 지정 받는 것 보다 더 우위임을 잊지 말아야 함.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금호강 수변문화 활성화 방안

| 추진위원회 분야별 발표 | **김 병 연** (문화재생)

행복북구문화재단

행복북구 시민포럼

금호강 중심 건강 문화 콘텐츠

문화재생 분야

발표
김병연 추진위원장

제작
공초록 추진위원

분과 소개

회의 과정

1차 전체 모임

2차 우리가 바라는 북구 모습

3차 북구의 현재 모습

4차 북구에서 실행 가능한 컨텐츠

5차 금호강 중심 컨텐츠

중심 아이디어

금호강 중심 건강 문화 콘텐츠

중심 아이디어

금호강 중심 건강 문화 콘텐츠

Sprit Health

· 서원 문화 활성화
· 죽궁 축제 개최

Body Health

· 둘레길 조성
· 건강 클래스 운영

Sprit Health (1) 서원 문화 활성화

연경서원

사양서원

금호강 물줄기를 따라 위치한
대구 북구만의 유서 깊은 정신문화자원 재생 및 활용

Sprit Health (2) 죽궁 축제 개최

활쏘기 체험

금호강변 축제

금호강변의 왕건과 견훤의 활쏘기 전투장면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활쏘기 체험 부스를 활용한 축제 기획

Body Health (1) 둘레길 조성

북구 함지산

강변 둘레길

금호강과 함지산을 연결하는 대구 북구만의 둘레길 코스 개발

Body Health (2) 건강 클래스 운영

김천 사례

요가 클래스

금호강변 근린공원 공간을 활용한

요가, 체조 등 건강 클래스 운영 및 지원

마치며

대구
북구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주민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공유공간

| 추진위원회 분야별 발표 | **유 슬 아** (문화콘텐츠)

2020 대구 북구 문화도시 추진위 문화콘텐츠 분과

▣참여자

대구 북구 내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단체, 예술가, 문화예술활동가 등 약 15명

▣공유목표

대구 북구민의 행복추구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

▣분과활동

1. 대구 북구 내에서 이뤄져온 문화예술활동 공유 및 자유논의
2. 대구 북구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공유 및 네트워킹
3. 주체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기 위한 아이디어 발산
4. 함께 생각하고 노력해볼만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 발전방향

▣문화도시 북구를 위해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

1. 대구 북구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 공유공간이 필요하다.
   ① 대구 북구 유휴시설 및 빈집, 공터 등을 지역민을 위한 지역 내 매력적인 거점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개발 또는 신규지정
   ② 지역민 누구나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원하면 제일 먼저 찾는 지역문화예술생활의 랜드마크화
   ③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활발한 교류 네트워킹을 통한 인적자원 구축, 활용
   ④ 대구 북구 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실내외 공간을 조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오픈소스 제공 및 관리
   ⑤ 지역주민의 활발한 문화예술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면 간편하고 원활한 공간, 자원, 시설 사용 인허가
   ⑥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유기자재, 공유공간, 공유사업비, 홍보 등 지원
2. 대구 북구는 좋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① 지속가능한 행복 북구 문화도시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의 어린이 문화예술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과 대구 북구 어린이 특화문화예술프로그램 구축 제안
   ② 환경, 예술, 기술, 공동체는 미래를 위한 열쇠
   ③ 아이를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 어린이도 부모도 함께 만족하는 좋은 대구북구 문화예술교육지원 및 어린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어린이 생활예술동아리사업 지원, 대구 북구 어린이 1인 1기 지원, 어린이예술회관)
   ④ 대구 북구의 자연환경,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환경교육
3. 대구 북구민의 문화예술교류와 활동을 위해 주민센터를 열어야한다.
   ① 접근성이 좋고 기자재, 시설, 인력 등이 갖추어진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민원 업무를 위한 공간이자 주민들의 공공 공간
   ② 주민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활동, 교류네트워킹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을 시 주민센터 야외공간, 주차장, 다목적실 등을 열어 지원
   ③ 주민 문화예술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아나바다 장터, 문화예술교육, 주민교류 문화예술놀이터 등으로 활용제안
   ④ 주민문화조례안, 주민문화예술자치회, 주민문화예술자치규약등 제도의 필요성

▣향후활동

1. 이번 문화도시위원회_문화예술콘텐츠 분과모임을 시작으로 '(가칭)대구 북구 문화예술자치협의회'로 지속적인 활동예정
   - 협의회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북구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킹진행
2. 이태원길(강북) 활성화를 통한 예술장터, 거리공연, 생활문화예술 지속발전노력
   - 강남에 지속적인 거점 문화예술활동 공간구축요청
   - 현 활동가, 활동단체들의 사업 지속 및 발굴을 위한 활발한 지원요청

※ 분과 모임에 참여한 각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모습을 당일 PPT로 조금 알릴 수 있도록 사진 및 사업소개 요청합니다.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하중도 및 이태원길 활성화 방안

| 추진위원회 분야별 발표 | 이 승 로 (시민문화)

문화도시 대구북구

시민문화분과 발표자 **이승로**

시민문화분과위원 조직도

행복북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시민문화분야(11명)			
새마을문고 중앙회 이승로 대구북구지회 회장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신창섭 대표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인 김지형 대표	시인보호구역 정훈교 대표
내마음은 콩밭 박승민 매니저	킬킬콘텐츠 연구소 김윤환 이사장	북구걷기협회 이은주 이사	반디 협동조합 전지혜 이사
마담장학회 김인호 이사	국우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정선주 추진위원장	진용현 북구 통장협의회 회장	

지금 북구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교육	문화	산업	역사	공간	지리적 환경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 보건대학교 과학대학교	문화 공연 多	강소 기업 많다	구암동 고분군	창조경제 문화단지	풍요 상징 금호강
젊은 도시 주거지로 각광	오페라 하우스	도심안의 공단	연경서원터 (금호강 강안문화)	신도시 주거공간 (사수동, 금호지구, 연경,도남)	금호강 오토 캠핑
교육자원 多 인간 소통이 부족	이태원길 참여율 떨어짐		칠곡향교	청년센터 다온나그래	팔거천 동화천 신천
청년 기획가 발굴 필요	전통 문화 사업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구암서원 (대구전통활)	창조경제 문화단지	대구의 관문 (교통의 요지)
북구 청년 리빙랩	소소하게 문화 향유 증가 북구새마을문고 부키아놀자		팔거산성 (대구방어)		하중도
	마을도서관 마을축제		근대 산업 문화 유산		

8월 회의 북구의 현재 가능성과 미래 발전성

대구 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 시민문화 분야 추진위원회의

- ➡ 북구의 문화도시 추진과정에 대한 제반 설명
- ➡ 북구의 현재 가능성과 미래 발전성에 관한 토의
- ➡ 북구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종합 토론 및 논의

9월 회의 북구의 미래 발전성 구체적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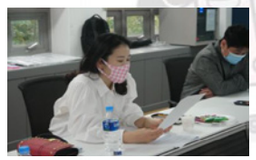
대구 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 문화재생 분야 추진위원회의

- 북구의 현재 가능성과 미래 발전성에 관한 가능성토의
- 북구의 미래 발전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토의
- 북구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종합 토론 및 논의

10월 회의 선정된 아이디어 세부내용 구체화

대구 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 시민문화 분야 추진위원회의

- 지난 회의내용 정리 및 중간보고
- 문화평상 전체회의 발표안 선정
- 선정된 아이디어 세부내용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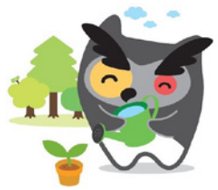
11월 회의 북구 발전을 위한 종합 토론 및 논의

대구 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 시민문화 분야 추진위원회의

- 북구의 현재 가능성과 미래 발전성에 대한 가능성 논의
- 10월 23일 공유회를 위한 분과별 주제 선정
- 북구 발전을 위한 종합 토론 및 논의

시민문화분야 하중도, 이태원길

	시민문화분야 하중도, 이태원길 활성화 방안 의제	비고
1	하중도의 새로운 네이밍 필요(부엉섬)	하중도
2	왕건과 견훤의 전투장면(마상전투)을 재현하는 행사 기획	하중도
3	주차공간 및 입구 확대	하중도
4	댄스 대회를 통한 청춘의 거리 모색	이태원길
5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 예를 들어 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 조성, 시간대별 차별화 프로그램 구성	이태원길
6	거리를 담당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배치 - 부키 보안관	이태원길



1. 금호강 하중도 현황 및 문제점

금호강 (하중도) 활성화 계획

	주제	내용	
1	금호강 하중 문화공원	대상자	- 북구 주민, 대구 시민
		대상지 특징	- 하천 섬, 역새·코스모스 등 나들이 공간으로 애용. - 접근성 불편, 주차 및 진입로 불편
		거주자 특징	- 어린이(유치원생) 많음, 노곡동 주민들이 불편해함
		무엇을	- 조형예술전시 설치, 문화체험 및 둘레길 조성, 하중도의 상징물 개발
		어떻게	- 전통무예 마차경기, 왕건과 견훤의 전투장면 재현행사. - 부엉이 상징물 만들기 (부키 등 이용) - 유치원생 대상 교육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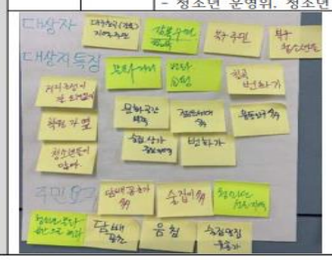
금호강 하중도(부엉섬) 활성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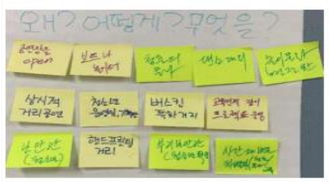
- 북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상징
- 고속도로에서 대구를 볼 수 있는 지리적 교통 요충지
- 북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호강 수변공원
- 가장 아름다운 대구 10경 중 최고
- 고려 왕건과 견훤의 전투 스토리현장(무태)
- 북구의 상징 부엉바위, 부엉마을을 바라보는 지형
- 부엉섬 문화관광중심, 수변공원으로 활성화

2. 이태원길 현황 및 문제점

이태원길 활성화 계획

2	이태원길 활성화	대상자	- 북구 강북 지역 주민, 북구 청소년들
		대상지 특징	- 문화거리, 번화가, 쇼핑, 거리조성이 잘 되어있음, 학원가 옆 - 문화공간 부족, 술집·상가 밀집 지역 - 젊은세대 많음, 유동인구 많음
		주민 요구	- 담배꽁초 및 유흥주점 많음 →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변화가 필요
		무엇을	-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어떻게	- 공연장, 보드 놀이터, 댄스대회 - 상시적 거리공연, 버스킹 특화거리, 핸드프린팅 거리, 시간대별로 차별화 - 청소년 운영위, 청소년 보안관, 부키 보안관, 교육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 ▶ 문화 공동체 육성, 문화도시 창조
- ▶ 지역 문화, 예술, 교육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참여 네트워크 조성
- ▶ 대구 북구 지역 랜드마크
- ▶ 문화/역사, 산업의 태동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

문화창조도시 대구 북구

ThankYou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도남동 국화마을 이야기

| 추진위원회 분야별 발표 | **이 정 웅** (역사문화)

도남동 국화마을 이야기

□, 대상지

0 북구 도남동(자지미, 정걸, 국동 일원)

□ 현황

0, 농촌 환경이 잘 보전된 도시 속의 농촌 마을

0, 도남아파트단지 입주민 여가 활용, 힐링 공간 필요성 대두

0, 이태원의 소설『객사』의 무대 등 다양한 문화자산 보유

2020 준공 예정인 도남지구 아파트 단지

□ 아파트 단지 현황

0, 면적 : 91만 7,000m2

0, 가구 수 : 5,622 가구

0, 입주 예정 인원 : 1만 4,000명

0, 준공 예정일 : 2022

□ 부존자원

0, 자연자원

-국우동 탱자나무(대구시 기념물 제10호), 보호수 (할배, 할매나무), 토종 국화, 도남지

0, 비지정 문화유산

- 이충사, 도남재, 유하당 ·정효각, 백암재, 범국회

도남지

□ 개발 방향

0, 도남지 친환경 개발

-데크 및 정자 의자 등 편의시설설치. 수서생물 생태학습장조성, 저수지 비탈면 국화단지조성

0, 국화축제 개최

범국회 제도화, 국화축제, 국화주, 국화 전 등 국화 먹거리개발, 도자기

체험(흙 굽는 마을), 작은 음악회 유치

국화길(고창 질마재)

범국회

0, 둘레길 조성

-백암재- 할매나무-유화당·정효각-도남지둑길-수변 데크길-흙굽는 마을
- 이충사(도남재)-할배나무

0, 농촌체험마을 조성

-모내기체험, 허수아비만들기, 벼배기 및 탈곡, 김장담그기, 텃밭 운영 등

벼베기 행사

□주관

0 총괄 : 북구청

-도남지 데크설치, 생태학습장, 비탈면 국화심기 ; 농어촌공사에 건의
*사회공헌사업 요청
*국화 묘 지원 북구청(공원녹지과) : 수목원 국화전시회 개최 후 잔여 묘목 협조 요청

-농촌체험 프로금램 ; 칠곡농협, 팔거역사문화연구회
*지원 : 칠곡농협

*운영 : 팔거역사문화연구회

-둘레길 스토리 텔링 운영 : 청림문화재 연구소
● 교재 제작비, 해설사 수당 : 북구청
● 홍보 및 참가자 모집 및 시행 ; 청림문화재연구소
-작은 음악회, 범국회 시연 재료비 및 인건비 : 북구행복문화재단

유회당 범국회(泛菊會)

0, 연혁(沿革)

대구시 북구 국우동 국동(菊洞)마을에서 약 400년 세거해 온 인천이씨 쌍명재공파 국동 문중 주손 이해준이 처음 주관한 모임이다. 그는 1864년(고종 1) 문중 재실인 유화당(有華堂)을 건립하고, 그해 가을 유화당으로 손님을 초대해 범국회를 열었다. 범국(泛菊)은 국화주를 마시는 중양절 세시풍속으로 중국 시인 도연명이 중양절에 국화밭에서 국화주를 마셨다는 고사에서 유래

0, 애국설

-작가 및 국화를 처음 심은 사람 : 간재(澗齋) 이성량(李成樑, 1624~1720) 국동 입향조
-발표연도 : 1695년(숙종 21)
-시연 : 2020년 11월 6일

물과 뭍에 있는 초목의 꽃은 모두 봄에 피어 혹 붉고 혹 희면서 향기로써 아름다움을 뽐내는데, 모란을 사랑함은 부귀한 사람들이 많고 연꽃을 사랑함은 오직 군자만이 할 수 있다. 파릉(灞陵)의 매화(梅)는 혜원당(惠園堂)의 문장에서 많이 취하였다. 그러나 국화(菊花)는 꽃 중에 은자(隱者)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그 꽃의 황금빛은 중앙의 바른 색을 잃지 않았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머물러 홀로 중양절(重陽節) 늦게까지 향기를 보존하니, 채마밭 가꾸는 늙은이는 깊어가는 가을날 그 명성을 절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일찍이 이름난 울긋불긋한 꽃과도 화려함을 다투지 않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음에 관심 두거나 믿지 않았으나 그 모습은 본래부터 맑은 것이었다.

나는 매우 용렬하여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구하고 싶지 않아서 이에 은둔(隱遁)하기로 작정하고 고을 동쪽 국동(菊東) 상국리(上國里)에 집을 마련하였다.

과연 이보다 앞서 어떤 사람이 국화가 사랑할 만한 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고을의 이름을 국동(菊洞)이라 지었겠는가? 당시에 국화(菊花)를 심은 사람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국화(菊花) 몇 떨기가 무성한 숲속에서 뒤섞여 자라고 있었다. 내가 마침내 막힌 곳을 트이게 하고 주변을 잘 정리한 후 10여(餘) 뿌리를 구해서 더 보태어 심었다. 가을에 이미 꽃이 피었는데 꽃이 번성(繁盛)하여 사람과 꽃이 더불어 그 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었기에 사랑하는 마음 끝이 없어 마침내 이설(說)을 짓노라.

을해(乙亥: 靑猪) 중양절(重陽節) 간하병창 (澗下病傖) 국동서실(菊東書室)에서 쓰노라.”

愛菊說

水陸草木之花皆發於春 而或紅或白 芳菲爭媚 牧丹之愛 富貴者衆矣 蓮之愛 惟君子能之 灞陵梅 惠園堂文章多取之 而菊是花之隱逸也 愛之者鮮 而其華黃不失中央之正色 其香遠 獨保重陽之晩節 則老圃深秋其名自重 曾不爭榮於名花之紅白 亦不關恃於時人之愛不愛 而其容也固澹如矣 余甚劣不欲干進於世 仍作隱

遁計　僦室于郡東菊洞上國里　果未知前此　何人能知菊之爲愛　而以名其洞歟　時無栽菊者　猶有菊叢枝三本　雜生於所居屋東畔林薈中　余遂疏而治之　加得十餘本幷栽之　秋旣花　花繁人與花可以同得其香矣　愛不可不旣　遂爲之說

歲靑猪　重陽節　澗下病倡　書于菊東書室

유화당 종부와 박만규 팔거역사문화연구회 부회장

0, 향후 계획
-범국회를 정례화하여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
-국화축제와 더불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참여 방법 및 사업 규모와 내용 검토

m e m o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대구 북구 전통 '활'

| 소속 단체 발표 | **이 재 인** (국우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

https://youtu.be/obKEfKGBNaI

대구의 활, 竹弓 명인 김병연 궁장

대구 북구 전통 '활'

오천년 활의 정신을 꽃피우리라

"이분에 대한 저의 소개는
활의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신
신념있는 명인"

조선왕조 효종실록 6년
1655년 신유 2월 6일

"대구부사 이정이 새로운 죽궁을 만들어 임금께 바치니
크게 기뻐하였고 특명으로 통정계(通政階:지금의 차관급)로 높였다.
본도의 병마절도사가 본읍의 군기를 검열하고서
새로 만든 죽궁(竹弓)의
제도를 계문하니 특별히 칭찬하는 명이 있었다."

" 역사에 묻힌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기록을 찾은 것입니다. "

竹弓 명인 김병연 궁장

竹

- 15년전 전통 죽궁을 인대를 세번이나 다치면서 활 하나에 수백번의 손길로 정성을 다해 최초로 복원
- 나전죽궁, 압화죽궁, 별화(단청)죽궁 개발

弓

- 나전죽궁은 한국관광공사의 제안 받아 지역관광상품으로 개발 영국, 일본, 중국 등 수출
- KBS "한국의 창조적인 장인"으로 선정 11개국 언어로 미국, 프랑스, 남미 등 전세계에 방송

아리랑 사법

竹

- '가슴의 한을 화살에 담아 떠나보낸다' 는 뜻의 대금 음율에 예와 도를 품은 활쏘기 사법
-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5천년 활의 정신을 고취하고 인성 함양에 우수한 효과

弓

- 한.중 무술교류 및 21개국 주한대사 초청 등 국내외 총 80여회 시연
- 대구의 상징이 된 죽궁과 아리랑 사법

향사례(鄕射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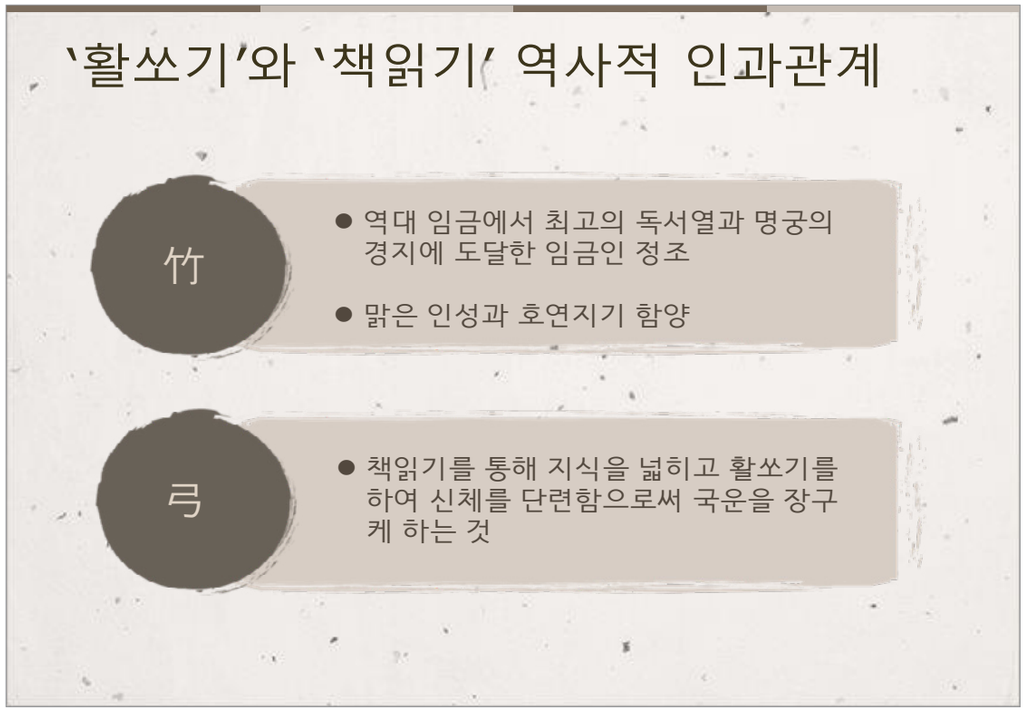
; 예를 품어 활을 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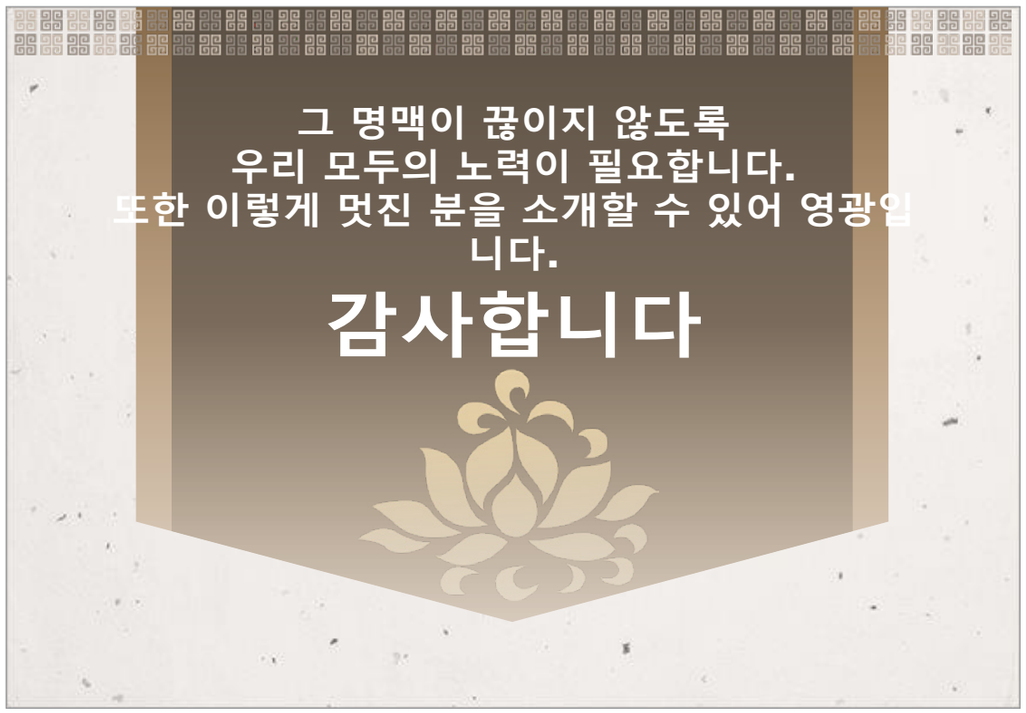
竹

- 학생들이 설레이며 기다리는 체험학습
- 조선시대 활쏘기 국가 의례
- 학교 동아리 수업으로 인격 함양
- 성장기 학생들에게 예와 도를 지도

弓

- 해외 유학생에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 동아리 문화 형성
- 새마을문고 북구지회에서 외국인이 참가하는 '향사례 - 대구 글로벌전통활쏘기 대회'로 발전


'활쏘기'와 '책읽기' 역사적 인과관계
竹
● 역대 임금에서 최고의 독서열과 명궁의 경지에 도달한 임금인 정조
● 맑은 인성과 호연지기 함양
弓
● 책읽기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활쏘기를 하여 신체를 단련함으로써 국운을 장구케 하는 것


그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멋진 분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m e m o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부키야 놀자

| 소속 단체 발표 | **이 승 로** (새마을문고 대구북구지회 회장)

부키야 놀자!!
북 & 페스티벌

새마을문고대구북구지부

*부키*는 *대구북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부키야 놀자'는 대구북구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활동 **BOOK & FESTIVAL**

새마을문고대구북구지부

행사 목적

▶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건강한 문화공동체 육성

품위있는 문화도시 건설

▶ 책의 소중함과 독서생활 습관을 정착시켜
창의적인 인재양성 - 도서기증활동으로
평생학습 참여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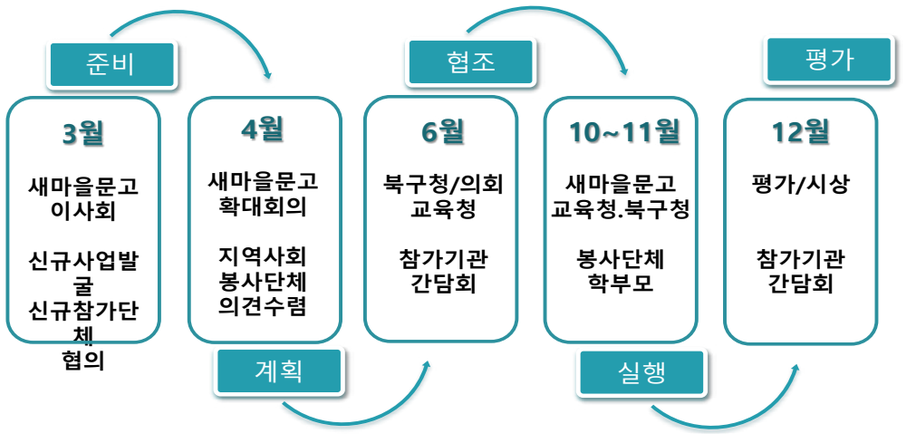
▶ 북구를 상징하는 부키 마스코트를 활용한
창작활동으로 지역사랑 고양
(부키 : 북구키즈. 북 & 키즈)

행사 진행

▶ 새마을 문고 주최

▶ 지역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관참여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



활동 세부 계획

- ▶ 북구 캐릭터 부키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 대회
- ▶ **동아리 댄스** 대회
- ▶ **유치부 합창** 경연대회
- ▶ 향사례 **대구전통 활쏘기**
- ▶ **시낭송 대회**
- ▶ 참여마당 **체험** 부스
  (문화, 예술, 전통, 과학, 건강)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마당*

- ▶ **독서 지도** - 수준별 독서코칭,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서 습관 들이기
- ▶ **알뜰 독서** - 교환전 오피니언리더 도서 기증 및 신간, 구간 교환
- ▶ **진로 코칭** - 적성에 맞는 학생 진로상담 / 코칭 전문가 초청
- ▶ **시 낭송 / 시인과의 대화** - 시낭송 체험 및 시인과의 대화
- ▶ **전통의 향기** - 예절, 다도 체험 (칠곡 향교)
- ▶ **활쏘기 체험** - 대구 전통 활 죽궁 체험
- ▶ **국채보상운동 나라사랑 체험** -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알리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마당*

- ▶ **생활 예술 체험** -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도예 체험, 쥬얼리 체험
- ▶ **가상현실, 증강현실** - 4차 산업 VR 체험
- ▶ **프리 마켓** - 북구 지역 예술인 생활 소품 만들기 체험
- ▶ **대구북구 구암동 고분군 문화유적 해설**
- ▶ **북구 새마을문고 회원 모집**
  새마을문고 지도자, 인문학, 문화 예술, 기타 봉사 활동 가능자
- ▶ **드론 체험**

시상식

▶ **장소** : 북구청 4층 대회의실

▶ **시상 내역**

2017년 27명

- ▶ 북구청장(최우수2명)
- ▶ 서부교육장/북구의장 (우수13명)
- ▶ 북구새마을회장/ 북구문고회장 (장려12명)

2018년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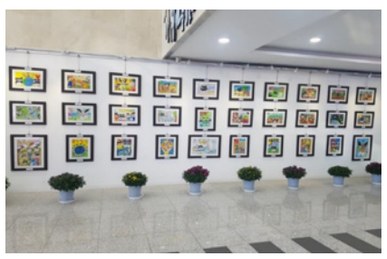
- ▶ 북구청장(최우수7명)
- ▶ 서부교육장/북구의장 (우수18명)
- ▶ 북구새마을회장 (장려20명)

2019년 46명

- ▶ 북구청장(최우수6명,장원1명)
- ▶ 서부교육장/북구의장 (우수15명,준장원1명)
- ▶ 북구새마을회장/ 북구문고회장/ 강북경찰서장 (장려20명)
- ▶ 북부경찰서장(특별상3명)

시상식

수상작 전시회 (장소: 북구청 로비)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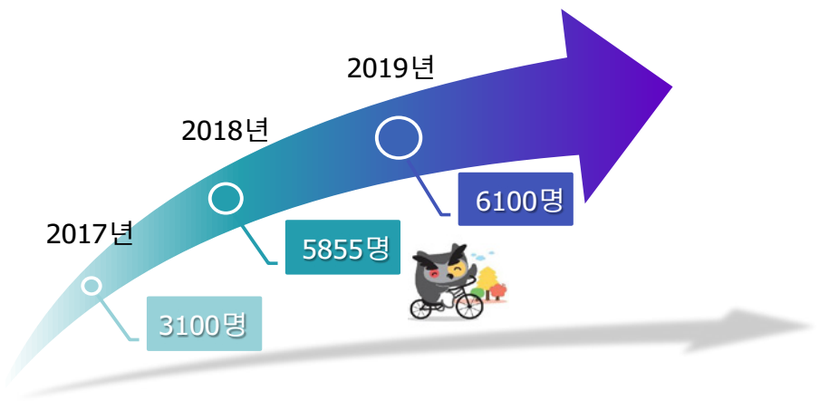
- ▶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 육성, 문화도시 창조**
- ▶ **지역 문화, 예술, 교육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참여**
- ▶ **아이들의 대구 북구 지역 사랑 고양**
-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학교, 북구청, 의회, 청소년 단체,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지역기업, 지역 대학교(경북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참여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및 동기부여

부키야 놀자! 성과

구분		2017	2018	2019
개최장소		함지공원	함지공원	삼성창조경제단지
행사참여	팀	5	9	12
	개인(명)	150	166	220
	체험(명)	3,100	5,855	6,100
참여기관(개)		10	18	20
봉사동아리(명)		145	170	232
부스운영(개)		17	21	28

▶년도별 행사참여 인원변화



▶리플렛 앞면

2017 부키야 놀자 리플렛

2018 부키야 놀자 리플렛

▶리플렛 앞면

2019 부키야 놀자 리플렛

▶리플렛 앞면

부키야놀자 식전공연 (전년도 수상자 공연)

부키야놀자 경연 대회들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생명살림 부키 그림그리기대회

평화 댄스동아리 한마당 경진대회

공경 전통 활쏘기 경연대회

어린이 동요 합창대회

시낭송 대회

다양한 활동 체험부스

칠곡향교 다도 예절교실

과학대 쥬얼리만들기 / 내빈맞이

네일아트 / 페이스페인팅

독서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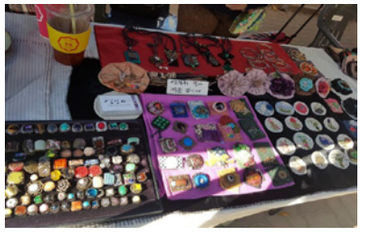
알뜰 독서교환전

시낭송 체험

전통의 향기 보이차

ARVR 가상증강현실 체험

아트마켓



국채보상운동 나라사랑체험

북적북적 도서관

보건대 생명안전 직업체험

타로 심리상담 / 나만의 인형만들기

폐현수막 예코백 만들기

건강한 구강만들기 / 치매예방체험

3D펜 열쇠고리 / 그림캐쳐 만들기

독도사랑체험 / 나무야 놀자

영어그림책 읽기 / 진로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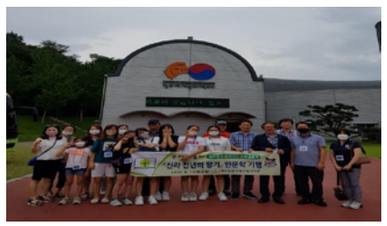
문화공동체 운동 부키야놀자

오피니언리더 도서기증 릴레이

▶지역사회 독서권장 캠페인

부키야놀자 영화데이

「신라 천년의 향기」 인문학 기행



새마을문고와 함께하는 시낭송회

북구어린이도서관 운영

대구시문고 회장 북구 차세대리더 간담회

언론보도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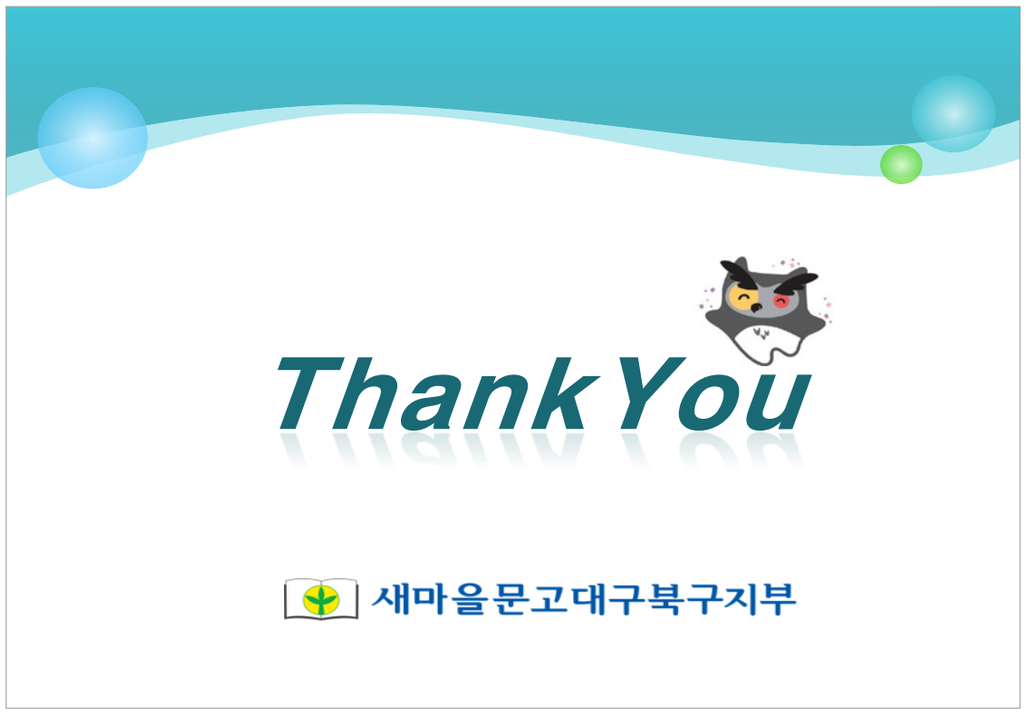
새마을문고 대구시북구지부 '부키야 놀자북&페스티벌' 개최
2018 부키야 놀자

'부키야 놀자' 그림 그리기 경연 시상식

새마을문고 대구 북구지회 신라천년의 향기 인문학기행

아이들과 함께하는 '2018 부키야 놀자 북 페스티벌'
책 읽는 도시! 대구북구!

북 페스티벌 '부키야 놀자' 성황리 개최...다채로운 참여마당
부키야 놀자


ThankYou
새마을문고대구북구지부

m e m o

[2부] 지역사람들 & 생활문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 사례 발표 | **김 혜 연** (행복북구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인력 김혜연

행복북구문화재단

Contents

01. 사업개요
02.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
03.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 활동사례
04. 지역문화 현장 사례 : 지금 북구는
05. 시사점 및 결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 프로세스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목적

지역문화인력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결핍과 수요를 문화를 통해 채우는 전문인력이기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알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문화인력의 범위와 도시재생은 근접하게 맞닿아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역 기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지역 정체성이 주민에 의해 보존시키는 것이 지역문화인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2020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사업 「국내 · 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관음동'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지역문화인력이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역재생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 지역재생과 주민커뮤니티 및 문화가 접목한 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의 발전 대안 모색 및 문화마을로 가는 도시재생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 프로세스

1회차
전문가 자문회의
20.10.22 (목)

2회차
관음동주민간담회
20.11.02 (금)

3회차
현장답사 간담회
20.11.10 (화)

참가 자문위원

김언호 (사)커뮤니티와경제 팀장
김지형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대표
신창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재민 (재)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2.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

-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치

행복북구문화재단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치

행복북구문화재단

도시재생사업이란

지속 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보다 나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자력기반 확보를 꾀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

①지역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
②주민참여와 협치
③지역맞춤형 지원
④쇠퇴도가 높은 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⑤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연계-융합
⑥부처 · 부서간 협력에 의한 패키지지원
⑦재정지원은 공공 공간에 한정하고 민간활력을 활용.

구분	주거재생형(저층 주거밀집지역)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특성	소규모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지역경제
대상지	(소규모 저층주거 밀집지역) 도로 등 기초기반시설 양호집중적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길 정비 등다 필요한 노후주택밀집지(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인진위험 D.E 등급 주택포함)	(골목상권과 주거지) 공동체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공인보호가 시급한 지역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원도심의 공공사비스지하의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가,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
특징/내용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급, 주택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 주택정비 등	지역공동체거점조성, 지역복지서비스창장, 골목상권살리기, 생활환경인프라 가선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	원도심 기능회복, 재래시장 등 상권경쟁력 강화, 역사 · 문화 · 관광산업 연계,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창업촉진 (공공기능 · 상권의 회복과 활력 증진)	신경제거점형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지역적특성에 따른 기반시설정비, 복합앵커시설 구축, 배후지역 복합지원
면적	5만m²대만	10만m²이하	10~15만m²	20만m²	50만m²

도시재생의 유형 자료=2017.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재정리

3.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 사례

1) 해외 사례
- 런던 해크니주 달스턴
- 독일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2) 국내 사례
- 칠곡인문학마을
- 우렁이밥상협동조합

행복북구문화재단

1) 해외사례 런던 해크니주 달스턴

행복북구문화재단

런던의 대표적 슬럼가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지로

해크니(Hackney) 구의 달스턴(Dalston) 지역은 2006년까지만 해도 마약과 강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런던의 대표적인 슬럼가였다. 그런데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도시가 거짓말처럼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82년에 설립된 해크니개발협동조합(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이 있었다.

HCD 해크니개발협동조합 건물과 조합원

질레트 광장
(Gillett Square)

1) 해외사례 런던 해크니주 달스턴

행복북구문화재단

대표적인 달스톤 시민주도형 성공사례로는 달스톤이스턴커브정원(Dalston Estern Curve Garden)을 꼽을 수 있다. 시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2010년 봄에 완공된 건축가와 지역 주민의 협업으로 조성된 정원이다.

1) 해외사례 독일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행복북구문화재단

'예술 · 문화 · 사회 프로젝트 센터가 이곳에 생길 것이다'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은 1970년에 완공된 콘크리트 건물로 구 동독시대 정부가 연방 통계청으로 사용했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에는 통일 독일 정 부가 사용했다. 2008년부터 건물은 활용되지 못했고 2015년에 재개발이 거론됐 지만 그해 가을, 베를린 예술가들이 먼저 건물에 대한 재사용을 주장하며 '예술 · 문화 · 사회 프로젝트 센터가 바로 이 자리에 생길 것이다'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10월 에 예술인 연합회(Alliance of Threatened Berlin Studios),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 비영리 시민단체와 함께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 이니셔티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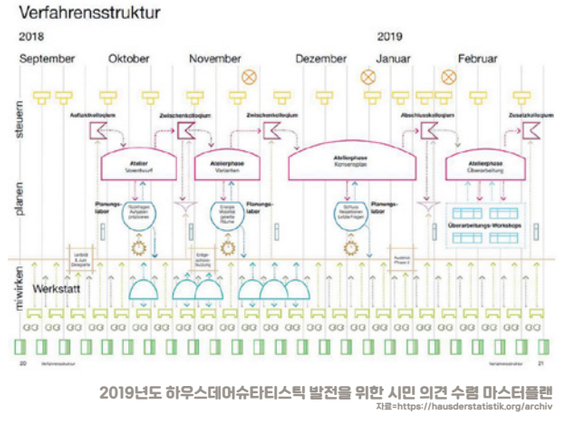
자료=Initiative Haus der Statistik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사무실 입구

자료=https://www.making-futures.com/haus-der-statistik

1) 해외사례 독일 하우스 데어 슈타티스틱(Haus der Statistik)

행복북구문화재단



2019년도 하우스데어슈타티스틱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마스터플랜
자료=https://hausderstatistik.org/archiv

2) 국내사례 칠곡인문학마을

행복북구문화재단

> 평생학습의 뿌리에서 시작한 인문학은 마을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마을 인문학을 창출했다. 여기서 인문학은 학문적 인문학이 아닌 오로지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인문학이다. 따라서 칠곡 인문학마을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칠곡군 석적읍 부영아파트

2) 국내사례 칠곡인문학마을

행복북구문화재단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마을

「북삼읍 어로리, '보람할매연극단 은퇴식' 열려」

자료=2016.11.28 칠곡 군정뉴스,

2) 국내사례 우렁이밥상협동조합

행복북구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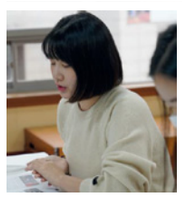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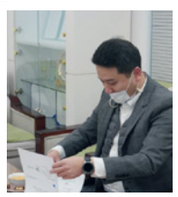
마을 활동의 오랜 역사가 담긴 우렁이밥상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는 그 지역의 터줏대감 마을기업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이 있다. '우렁이밥상협동조합'이 있는 이곳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곳에는 '우렁이밥 상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2003년부터 '와룡배움터'라는 마을공부방이 있었다.

4. 지역문화 현장 사례 : 지금 북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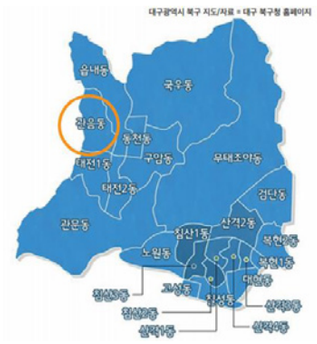
행복북구문화재단

1)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2) 주민들의 입장에서

2) 주민들의 입장에서 관음동 대상지 배경 및 특성



20.11.11(수) 관음동도시재생추진위원단 발대식

3) 현장답사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1. 일시	2020. 11. 10.(화) 11:00
2. 장소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46, 3층)
3. 참 석 자	**(사)커뮤니티와경제 김언호 팀장**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인(人) 김지형 대표**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신동희 관장**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문화정책팀 이현종 PD, 강구인 PD, 김희정 PD, 문화예술교육사 정혜경, 담당 김혜연 **총 8인**
4. 내용	북구 소재 민간도서관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현장답사 가. 민간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내 제공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안내 및 현장답사 나. 마을축제 논두렁밭두렁축제 안내

3) 현장답사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행복북구문화재단

도서관 행사<책놀이 한마당>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 속 캐릭터

도서관을 이전할 때 후원해준 주민들의 이름을 벽에 붙여놓았다

3) 현장답사 꿈꾸는마을도서관도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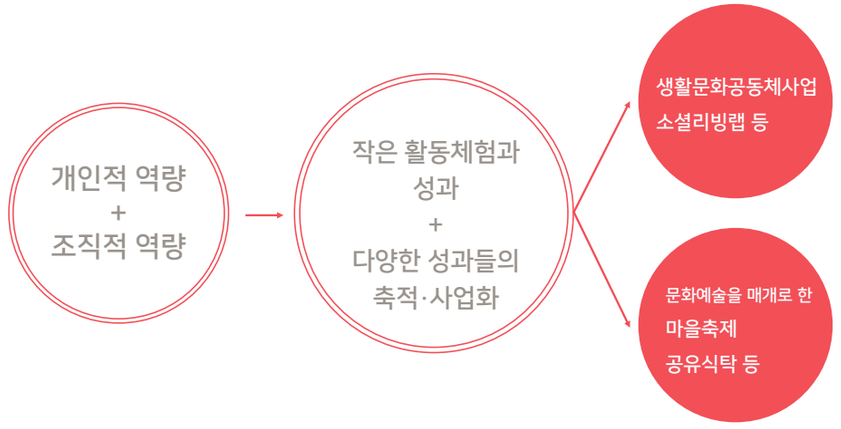
행복북구문화재단

5. 시사점 및 결론

행복북구문화재단

5. 시사점 및 결론

행복북구문화재단



m e m o

행복북구문화재단
HAENGBOK BUKGU CULTURAL FOUNDATION